

‘인천도시철도 4호선 조속 추진안’ 상임위 통과

김중배 인천시의원 대표 발의 6월 시행 철도구축 용역 포함

인천도시철도 4호선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김중배(국민의힘, 미추홀구제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칭)인천도시철도 4호선 조속 추진 촉구결의안’이 결정됐다.

결의안의 내용은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에 가장 4호선 노선(연안부두-옹진군청-인하대역(환승)-인천법원-신기시장-터미널역(환승)-만

수지구-서창지구-소래포구역 등)을 포함해 추진할 것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TF팀을 설치할 것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내 시민과 인천시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인천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옹진군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연안부두역과 소래포구역을 연결하고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대학과 법원역을 신설하고 인천도시철도역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터미널역을 중심으로 중구와 미추홀구·남동구를 관통하는 노선을 축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광역도시 인구 대비 철도 이용 현황을 보면 부산시는 179배, 대구시 111배임에도 인천시는 77배에 불과해 인천도시철도 확충이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57만명의 옹진군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연안부두는 도시철도 연결 노선이 없어 버스를 타고 우회하는 등 전철역의 신설이 늘 요구되는 곳이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 외곽 전체를 순환하는 3호선 노선을 검토 중이지만 경제성이 매우 낮아 단기간 추진이 어려운 전망이다.

지난 3월 제285회 임시회에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도시철도 4호선 조속 추진을

문는 김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와 대통령실에 각각 송부될 예정이고 6월부터 시행되는 인천시 철도구축 연구용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인천의 도시철도는 인구 증가에 비해 노선 수가 부족하다. 대학과 법원, 터미널을 연결하고, 인천 해양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중삼 기자

의회 단신

공공도서관 독서 문화 진흥 제도적 기반 마련

김유곤 인천시의원 발의

인천지역 공공도서관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5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국민의힘, 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에 분리돼 있던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중삼 기자

김유곤 의원은 평소 공공도서관의 중요성과 시대변화에 따른 역할 재정립에 대해 고민하며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고 특히 지역 내 332개 작은 도서관에 대해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유곤 의원은 “독서 문화 진흥은 창조적인 사고를 촉진해 문화적인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지역 독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가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인천시 독서 문화 진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중삼 기자

인천 부평구 주민친화적 발전 모색

의원연구모임 발대식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구 출연기관의 주민친화적 발전을 모색하는 의원연구모임(대표의원 김숙희)’은 12일 발대식을 갖고 사전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숙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의원을 맡고 박영훈·구동오·윤구영 의원으로 구성된 해당 의원연구단체는 ‘부평구와 주민에게 필요한 출연기관의 발전모형 모색’을 연구 주제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간 연구활동을 펼쳐나가고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아울러 이날 진행된 사전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연구용역을 위한 과업 내용과 간담회, 세미나, 현장 방문 등 향후 연구활동 등에 대해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숙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활발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부평구의 경제와 변화하는 주민 생활을 반영하고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부평구만의 출연기관 발전모형을 도출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승길 기자



평택시의회가 11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오영훈 도지사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평택시의회)

오영훈 제주지사와 소통 가져

평택시의회 간담회

평택시의회가 11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오영훈 도지사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시의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의정연수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가운데 양 지자체 간의 교류 협력 강화 및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의회 18명의 의원 전원과 오영훈 도지사가 참석해 평택시와 제주도의 교류·연계 방안, 대표적인 관광 정책, 기업 유치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폭

넓은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유승영 의장은 “평택시와 제주도는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만큼 서로의 강점을 융합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만남이 양 지역이 협력해 상생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평택시의회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제주도와 평택시는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양 지역이 함께 협력해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훈 기자

군포 원도심 재개발... “조례·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 토론회에서 ‘도 역할’ 강조

“군포시는 군포시의 역할에 집중해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경기도와 시에서 추진해야 할 것은 조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재개발 진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윤경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시 경기도의 역할’ 정책토론회가 12일 군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려 토론을 벌였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시 경기도의 역할’ 정책토론회가 12일 군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차정환 경기도 도시주택실 노후신도시정비과 과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 동향 및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류정호 GH 도시공간정비사업처 처장은 공공사업을 시행할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하며, “GH의 축적된 노하우로 원도심 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윤성진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추진단 단장은 “경기도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1년부

터 현장점검 추진했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 조항 신설 및 표준예산 회계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한진운 군포시 재개발연합회 회장은 재개발과 관련해 경기도 조례에 여러 기준이 미비한 점을 언급하며 “군포시는 주변 도시에 비해 10년 이상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빠른 착공으

로 재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영호 경부선지하화 군포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당지역-서울역 지하화 실현 시 군포시 재개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재개발 시 현재 미사용 중인 공공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재개발과 관련 각 시군에서 정비사업 담당 매뉴얼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윤경 도의원은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해 경기도는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을, 군포시는 군포시의 역할에 집중해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와 시에서 추진해야 할 것은 조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재개발 진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및 정비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발언했다.

김민창 기자

인천 기초의회 의원 당 입법발의 ‘천차만별’

동구의회 2.4·연수구의회 1.5개 강화·부평구의회 각 0.6·0.5개 인천YMCA, 기초의원 활동 조사

인천 기초의회들의 의원 당 입법 발의 수가 의회별로 큰 대조를 보였다. 인천YMCA는 최근 지역 내 10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이다.

활동 유형은 조례 제정 및 개정과 결의안,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발의, 본회의 질의 수 등이다.

모니터링 결과 기초의회별로 의원 당 조례 제정 및 개정 등 입법 발의 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구의회는 의원 1인당 2.4개의 입법을 발의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연수구의회가 1.5개, 남동구의회 1.2개 미추홀구의회와 계양구의회·옹진구의회가 같은 1.1개 등의 순이다.

이어 중구의회 1.0개, 서구의회 0.7개, 강화군의회 0.6개, 부평구의회가 0.5개로 그 뒤를 이었다.

의원 개인 당 입법 발의 수가 동구의회를 제외하고 평균 2개를 넘지 못해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부평구의회는 0.5 밖에 나오지 않아 입법 활동이 매우 미미했다.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입법 발의는 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 중 하나다.

의회별 입법 발의 수는 남동구의회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의회 20건, 동구의회 19건 등의 순이다.

강화군의회는 경우 4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YMCA 관계자는 “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며 “지역사회 제반행정 및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적 모니터링의 사례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YMCA는 전체적인 기초의회 의정 모니터링 결과 활발한 활동을 벌인 우수 기초의회로 계양구의회·서구의회·연수구의회를 꼽았다

김중환 기자

www.1gan.co.kr

신문과 방송이 만나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줄

일간경기 · 일간경기TV

언제 어디서든 지역의 소식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깊이있는 뉴스를 전하는 지면
한발더 빠른 디지털 뉴스
생생한 현장의 소리 전하는 인터넷방송

검색창에 **일간경기** 검색하세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1147~1150호(청천동, 제이타워3차) 대표전화 : 032-508-0006 팩스 : 032-293-5030